

주말부부의 자녀 양육

안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박응임

여성 취업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문직 여성 비율의 증가 및 자녀에 대한 교육열로 인해 주말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점에서 '주말부부의 자녀양육'이라는 주제를 학술대회에서 다루게 된 점은 흥미로우며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주말부부에 관한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대상자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말부부뿐만 아니라 이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일반부부를 매칭시켜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발표자의 연구는 더 많은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발표 논문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주말부부의 자녀양육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에 본 토론에서는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표 논문의 몇몇 부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 논문에서는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 주말부부의 자녀양육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아동의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여 주말부부와 일반부부 집단을 비교하고, 그 결과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자녀간에 인지발달과 사회성발달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녀의 인지와 사회성에서 주말부부 집단과 일반부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주말부부가 자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일반적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관계 혹은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정서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 외에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의 발달 및 자녀의 정서적 발달 측면을 살펴보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박성옥과 양연숙(1998)이 번안·수정한 Crinic과 Greenberg(1990)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에서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어머니들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발표논문에서 사용한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자녀 돌보기와 같은 양육상황에서의 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발표논문에서 보고된 주말부부의 자녀양육 실태를 참고해보면, 주말부부의 경우 일반부부에 비해 2가지 이상의 대리양육 방법을 쓰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아버지가 같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일반부부의 어머니에 비해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주말부부의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본 박희선(1999)의 연구에서, 주말부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느꼈던 사건들을 직접 보고하게 했을 때, 훈육에 관련된 내용이 1순위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볼 때, 자녀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달리한다면 주말부부와 일반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차이 나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발표 논문에서 자녀의 연령이 6세 이상일 경우가 5세 이하인 경우보다 어머니의 양육취재감과 양육스트레스의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자 자녀의 연령 범위를 아동중기 혹은 청소년기까지 확대시켜 연구했을 때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나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어 보다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자녀 연령층을 대상으로 주말부부의 자녀양육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표 논문에서는 주말부부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접근함에 있어서 어머

니만을 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아동발달에는 아버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버지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있는 최근의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도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보고는 객관성의 결여와 바람직하게 응답하려는 성향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교사와 같은 제 3자에 의한 자녀 발달 특성의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자녀의 지각도 중요하므로 자녀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8.8%나 되고 20세 미만 여성을 제외하면 그 수치는 50%를 상회한다(통계청, 2001). 그리고 전문직 및 준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전체 취업 여성의 13.7%(통계청, 2001)를 넘어서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주말부부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따라서 주말부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심층적인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 자녀양육과정에서 주말부부만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덜어주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박희선(1999). 주말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취책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연보